

# ‘햇빛·바람 연금’으로 청년 모신다

### 신안군, 내년부터 40세 이하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조례 개정...6500명 혜택

신안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 연금’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햇빛·바람 연금’은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섬

주민들과 나눈다는 내용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갔다.



신안군 태양광 발전단지.

지난 4월 안좌·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민 6500여명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익 배당금 지급 기준에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의 전입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좌·자라·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5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내년엔 사육·임자·중도, 2023년엔 비금·신의 등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실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군 옥천·계곡면 주민 농기계 임대 편해졌다

###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문 열어 굴삭기·쟁기 등 25종 100대 구비

해남군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완료됐다.

최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옥천면 신거리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서부, 남부, 북부에 이어 5번째다.

군은 농업인 영농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동부사업소 개소에 따라 그동안 해남읍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나 산이면 북부사업소를 이용한 옥천·계곡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사업소는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9억원을 들여 부지 3728㎡에 연면적 594㎡ 규모다.



해남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을 책임질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난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업용굴삭기, 퇴비살포기, 쟁기(플라우) 등 임대농기계 25기종 100대가 구비됐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11월 말까지 6097농가에서 8856일을 임대해 해마다 10% 정도 늘어난 추세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정부 공모사업 선정

### 종합운동장 인근 2000㎡ 규모 60억 투입 2023년 착수

영암에 장애인 재활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영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국비 30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체육관 등이 마련된다.

군은 현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전남도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을 비롯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 공모를 통해 2023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장애인형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복지와 체계적인 재활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새해 첫 날은 완도수목원에서

### 1월1일 야외 난대림 탐방로·상왕봉 등산로 등 무료 개방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2022년 1월1일 하루 동안 야외 전시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이 푸른 난대림 곳곳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방시설은 31개 전문소원과 수변데크, 난대림 탐방로, 상왕봉 등산로 등이다. 아열대온실과 산림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방하지 않는다.

완도수목원은 2033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수목원이다.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765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푸른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 11월부터 애기동백나무 개화를 시작으로 동백림, 난대림 탐방로 등 수목원 곳곳에서 붉은 색의 아름다운 동백꽃을 볼 수 있다.

위안진 완도수목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전국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에서 가족과 화합을 다지고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 영광 불갑산IC ‘목포방향’ 개통...관광 활성화 기대

영광 불갑산하이패스나들목(IC) 목포방향 하행선(사진)이 개통돼 불갑사지 관광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실시설계 중인 서울방향 상행선은 영광읍 학정리에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휴게소에서 불갑산하이패스 IC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갑산하이패스IC는 지난 2019년 8월 착공해 2년 5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79억원이 투입됐다.

목포방향 하행선 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량(4.5t 미만)만 이용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불갑산하이패스IC 개통으로 불갑사지 관광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교통물류 비용 절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유지

목포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 결정에 따라 수행방식을 현재와 동일하게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9일 회의를 갖고 적정 수행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 8차례 논의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왔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으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지난 8월 구성됐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